

# 한은, 올 상반기 추가 금리인하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선택한 카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금리동결'이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묶어두고, 각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국내 경기 흐름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의 부진한 회복세에 금리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세계경제 불확실성... 금리조정 '부담'

세계 금융시장은 연초부터 불거진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기둔화 우려에 크게 흔들리는데 이어 글로벌 수요 위축, 국제유가 폭락, 주요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잇따른 악재들로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원화 약세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고조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40원대를 뚫고 치솟았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과도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지난 1월 기준 45억 3000만 달러 빠져나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다.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간 자금액만 239억 8700만 달러에 달한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자금 유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2월 중순 이후의 국민 증권자금이 유입 쪽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경제 변화에 있어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

### 주요국 통화정책 '관건'

했다. 이날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폭이 얼마나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는 데다 일본 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각각 14일과 15~16일 예정돼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기 회복세 미약... '금리인하' 요구 계속

9개월째 지속된 금리동결에도 시장에서의 금리인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한 탓이다. 2월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2.2% 감소하며 지난 2009년 2월(-18.5%)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째 감소세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제품 등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력 제품인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등 IT제품에서 모두 하락한 영향이다. 중국 등 신흥국 수요 둔화로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수경기도 1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1.4% 감소하고, 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17.4%)와 운송장비(-11.0%)에서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6.0% 줄어 들면서 개선세가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상반기 중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해진 만큼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의 필요성이 높아



### 신개념 전기차

새인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콘서트홀에서 열린 초소형 전기차 '위드(WID)' 역삼로 전기스쿠터 '위드유', '전기 스포츠루페 ED-1' 등 3종의 전기차 런칭행사에서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다.

졌다다는 분석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3월 금통위에서도 하성근 금통위원의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선용 LG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금리인하의 개연성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분간 글로벌 통화완화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4월 이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조용구 이베스트투자 연구원도 "국내의 경우 환율만 안정된다면 당장 4월에도 금리인하가 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 2분기 중 한차례 인하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국제유가 변동 움직임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한은으로서는 추가 금리인하를 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신중하게 나올 경우 한은이 통화정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외여건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추경 집행 여부 등 정책적 스탠스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경기부양에 대한 금리인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도 "대외여건이 자금채달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채널의 작용이 제한받을 수 있다"며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인진수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S7·S7엣지 출시로 반전 모색

삼성전자가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전을 모색한다

삼성전자는 2013년의 갤럭시S 이후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이 지난 2013년 3분기 6조 7000억원을 기록한 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며 2년만에 반토막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4분기 M(IT·모바일) 부문은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2조 2300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은 8%, 영업이익은 7%나 줄었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애플의 아이폰에 밀리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했다

삼성전자는 명예 회복을 위해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를 승부수로 꺼내 들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은 "모든 갤럭시시리즈 출시를 같이 했지만 이번처럼 치열하고 뜨겁게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제품 사양을 놓고 보면 낙관적 전망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원했던 카메라·방수·배터리 기능을 강화했다

갤럭시S7 엣지와 갤럭시S7은 최고급 DSLR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적용했다. 전·후면 카메라 모두 F1.7 조리개값의 렌즈가 탑재돼 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렷한 촬영이 가능하다

방수·방진 최고 규격인 IP68 등급도 획득했다. 스마트폰 전체 구조뿐만 아니라 USB 단자 이어폰 잭 등의 개별 부품까지 방수·방진 기능을 적용했다

전작보다 배터리 용량과 사용 시간도 늘었다. 갤럭시S7은 전작 갤럭시 S6(2550mAh)보다 배터리 용량을 18% 늘린 3000mAh 배터리를 넣었다. 갤럭시S7 엣지는 갤럭시S6 엣지(2600mAh)보다 38% 늘어난 3600mAh 배터리를 채용했다. 두 모델은 모두 유무선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출고기도 속속이어나가 떨어졌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출고가는 갤럭시S7이 32GB 83만 8000원·64GB 88만 원, 갤럭시S7 엣지가 32GB 92만 4000원·64GB 96만 8000원이다. 전작인 갤럭시S6·S6 엣지보다 2만~5만원 가량 낮아졌다

그러나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의 성패는 경쟁자인 LG전자의 G5가 출시된 후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5가 외신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G5와 비교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G5 출시를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인진수 기자

### 전자결제 활성화로 한국경제에 22.3억 기여

전자 결제의 활성화가 지난 5년간 한국에 22억 달러 넘는 경제 성장을 불러왔다는 조사 결과가 제기됐다

10일 비자가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에 의뢰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결제의 증가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약 2960억 달러 늘고 5년간 매년 평균 2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전자 결제의 확대가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모두 22억 3000만 달러, 늘어난 일자리는 연평균 1만 960개라고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카드 이용이 한국 소비 증가에는 0.07%, GDP 성장에는 0.04%의 기여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조사 기간 증가한 전 세계의 실질 소비 2.3% 가운데 전자 결제가 기여한 비중이 0.01% 특히 카드 사용이 늘어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 전자 결제 이용률이 1%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매년 1040억 달러 규모의 재화와 용역이 창출된다고도 했다

/인진수 기자

## 정부, "주택시장 점점 집단대출 규제 하는 것 아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 냉각 기류가 흐른다는 지적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당국과 은행은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거절하고 있어 시장이 위축된다는 반박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최근 주택금융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동향을 살피

### 업계 "은행들의 거절로 시장 위축" 반박

고 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잔액은 각각 482조 5000억원, 112조 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 4000억원, 2조 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강화된 기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1일 도입되면서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거절하고 있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방식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되돌리고, 금융위가 제시한 비거치식으로 돈을 빌릴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집단 대출에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일부 사업장의 집단 대출 거절은 사업 타당성에 근거했

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비수기에 따른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집단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은행에는 합리적인 심사할 것을, 주택건설업계에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7일 금감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시장과 대출 동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